1,2,3 RUTC 응답 25 : 237 나라를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망대(창45:4-8) 11/12/2023

하나님은 이 시대 237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놓으셨다. 그것을 언약(축복)으로 주셨다.

정말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 복음이 증거된 뒤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했다(마24:14).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이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어 산다.

이 세상을 살릴 자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행1:8).

하나님의 절대 결론이다. 이 결론을 붙잡고, 공부, 직장, 사업도 하고, 모든 문제, 아픔에서 승리하라.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시려고 준비한 제자가 있다(마28:18-20).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다.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자기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것이다.

이 언약을 믿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다(막16:15-20).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다. 결국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다(Missio Dei)

그럼에도 왜 우리는, 나는 잘 안 될까?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치유와 회복이다.

결국 구원도, 전도와 선교도 치유와 회복이다. 원래 주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다. 창1:27의 하나님이 주신 신분, 창2:7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창2:1-18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다 이루시고(요19:30), 다 주셨는데(마1:23), 여전히 속고 있다.

내 자신에게 속고(상처), 현실과 환경에 속고(세상),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영적 문제).

당연히 세계복음화는 어려워진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된다. 우리가 치유 받고 회복해야 할 세가지이다.

1. 치유 받고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나 개인이다.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나는 상처가 많다”(피해의식), “나는 능력이 없다”(열등의식). 여기서 두려움, 원망, 분노가 나오고, 관계가 깨진다.

1)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는 무조건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에 잡혀 있다(불신자 상태 6가지).

 그보다 더 큰 상처와 저주가 없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2) 문제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무능력이다.

 특히 타고난 문제가 있다. 흔히 기질, 또는 DNA라고도 한다. 심한 경우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선천적으로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

3)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그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 왕, 선지자의 권세를 주어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사61:1)

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거기서 영원히 해방 받은 것이다(롬8:1-2).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신 일이다.

 해방만 아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요일5:12), 새생명(롬6:4)을 주셨다.

 이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면서 옛생명(옛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내 자아를 새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간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묵상해야 한다.

② 나의 성장 과정이나 과거 속에 만들어진 상처도 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요일3:8).

 사단은 비슷한 문제들을 가져다주어 분노, 불신앙, 외로움, 좌절감에 빠지게 해서 치명적으로 무너지게 한다.

 세상의 것, 틀린 것에 빠지게도 한다(집착과 중독). 알콜 중독, 마약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성공 중독 등 많다.

 매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분의 다스림을 기도하라(집중). 그리고 그 왕의 권세로 나를

 속이는 흑암 권세를 꺽으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지속해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한다(마12:28)

③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14:6),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이다(마28:20)

 그 “함께”를 누리는 것이 능력이다. 요셉이 이 능력을 누리면서 애굽과 237을 살린 것이다(창41:38-39)

2. 치유 받고 회복해야 할 두 번째는 가정, 가족 관계이다. 내 가정과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창3장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시작된 것이 가정 문제이다. 서로 부끄러워하고, 원망하고, 책임전가까지 했다.

1)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가정, 가족관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라.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이다.

① 불신자 가족은 행16:31의 언약을 붙잡고, 나 때문에 전 가족이 구원받을 날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② 이미 믿는 자의 가정이고, 복음도 있는 가정인데 문제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할까? 여전히 절대 계획을 잡으라.

 예수님의 가정을 보라. 갈등 있었다(마12:46-50). 그러나 그 가족이 결국 초대교회의 주역이 된다(행1:13-14).

 야곱의 가정을 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칠 때는 네 명의 아내와 그 자녀들끼리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그 속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이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이 본문이다.

2) 내 가정에 있는 문제가 시대의 문제이고, 시대의 메시지이다. 이 답을 붙잡아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호세아의 가정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아내의 음란으로 인해 호세아는 고통 했지만 그것이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신다(호6:1-2)

3)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의 장점, 전문성, 심지어는 문제 아픔까지도 사용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쓰임받는 집이 미션홈이다. 초대교회는 홀로 된 여인들의 집에서 시작되었다(행16:15, 골4:15, 롬16:1).

 브리스가 아굴라는 국제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쫒겨났다(행18:1-2). 그러나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얻고는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로마를 살리는 주역이 된다(롬16:3-4).

3. 치유 받고 회복해야 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다. 내 직장, 산업,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1)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기업이라고 했다(시16:6).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자리이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미션을 찾으면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유일성 작품), 사는 모습에 빛이 난다.

2) 내가 있는 자리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계속 어둠이 느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빛의 망대). 그 현장의 어둠이 무너지는 날까지 파수꾼의 기도를 하라.

3) 마지막이 이 시대 강대국인 미국을 살리는 미션이다. 이 미국 안에서 다민족 살리고, 237로 가야 한다.

① 이 시대의 미국이 최악으로 타락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바벨론처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다시

 일어날 것이냐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가 사는 시대이고,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다.

②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빨리 이 결론을 내야 한다.

 아직도 내가 왜 미국에서 사는지를 모르고, 깨달았는데 놓치고 산다면 인생 풍랑과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깨닫고, 기도하는 날부터 모든 풍랑은 미국을 살리고, 가이사 앞에 서는 증거가 될 것이다(영적 써밋의 축복).

결론-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 산업, 이 땅을 살릴 자로 남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망대이다. 237 나라를 살릴 만큼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한다.